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01호 / 1월 16일

한중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

1. 개요

-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지대(FTA) 건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3국 기업의 FTA 건립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조사·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음.
- 지난 3년간 한 중 일 3국은 정상간 합의(2000년 11월 아세안+3 회의)에 따라 3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(대표연구기관: 한국 KIEP, 중국 DRC, 일본 NIRA)를 추진해 왔음.
- 공동연구 주제는 2001년에는 ‘3국간 무역원활화 방안’, 2002년에는 ‘3국간 투자 촉진방안’이었으며, 2003년부터는 3년간 예정으로 ‘한중일 FTA 건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’를 진행해 오고 있음.
-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2003년도 공동연구 주제인 ‘3국간 자유무역지대 건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’에 관한 중국측 연구성과의 일부로, 중국내 1,650여 개 한중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임.
- 주요 분석내용은 설문응답 기업의 ▲FTA 건립에 대한 전반적 입장, ▲FTA 동북아 및 3국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, ▲FTA 건립 이후의 기

업전략, ▲지역경제 일체화 촉진을 위한 방안 등임.

2. 설문응답 기업의 기본 상황

□ 이번 설문조사는 중국내 1,650여 개 한 중 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설문지 회수율은 12.3%임.

- 대상기업은 주로 대중형이며, 전체기업 중 종업원 1,000명 이상의 기업이 60.4%, 자본금 1,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 73.3%, 매출액 1,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 86.5%를 차지하고 있음.
- o 기업 유형은 국유 및 국유지주회사가 53%, 외자 및 합자기업이 27%, 사영기업은 5%를 차지하고 있음.
- o 전체 기업에서 상장기업은 48.8%, 기업집단기업은 4%를 차지함.
- 외자기업 중에서 일본기업은 67%, 한국기업은 18%이며, 이외에는 홍콩, 아세안, EU기업도 일부 설문에 참여하였음.

<표 1> 응답기업의 성격(표본기업 202개)

기업성격	비중(%)	외자기업구성	비중(%)
국유및국유지주	52.97	일본	66.7
외자독자	9.41	한국	18.2
중외합자	17.33	홍콩	9.1
중외합작	0	아세안	6.1
집단기업	3.96	EU	24.2
사영기업	5.45	미국	0
기타	10.89	기타국가	3.0

□ 대상기업의 86%가 수입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, 88%가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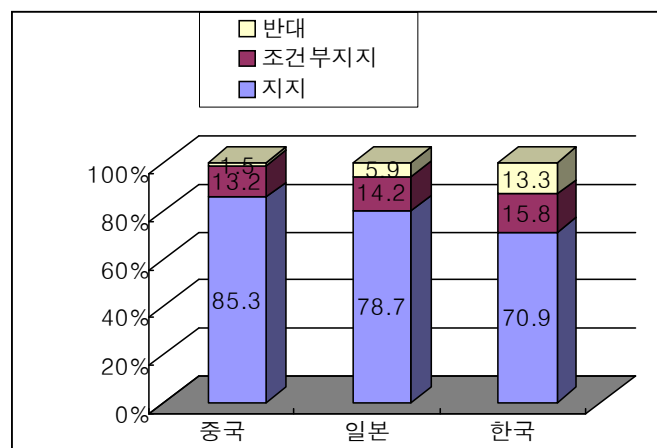
- 주요 수입국가는 일본으로, 전체 기업의 75%를 차지하고, 미국이나 EU, 한국도 45% 정도에 달함.

- 수입품목은 기계설비 및 부품, 철강, 금속, 방직 및 원료, 정밀의료기, 화학제품, 운송설비 등임.
- 주요 수출국가는 역시 일본으로, 전체 기업의 72%를 차지하고, 미국과 EU가 60% 정도, 홍콩과 한국이 5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.
- 수출품목은 방직의류, 기계설비 및 부품, 철강, 운송설비, 정밀의료기, 금속제품, 농산품 등임.

3. 설문 응답 기업의 FTA 건립에 대한 입장 및 견해

- 첫째, 한중일 3국의 FTA 건립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절대 다수가 찬성과 지지를 보냈음.
- 찬성을 표명한 기업의 비중은 한국이 71%로 가장 낮고, 일본은 79%, 중국은 85%에 달함.
- 반대를 표명한 기업은 한국이 13%로 가장 높고, 일본은 6%, 중국은 2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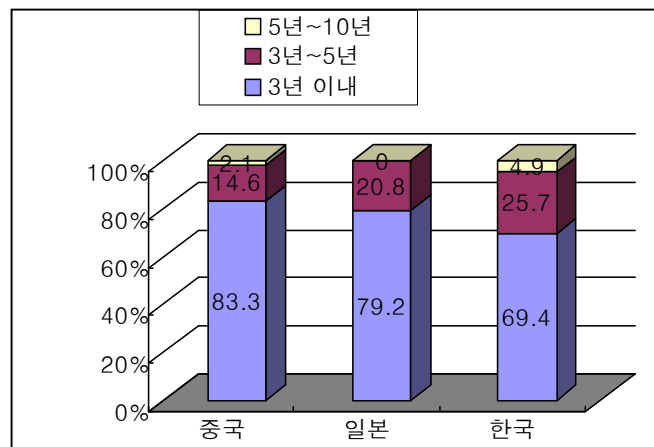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설문 응답기업의 FTA 건립에 대한 입장



- FTA 건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쌍방의 수출확대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.
- 중국기업은 수입비용 절감과 상호투자 촉진을 한국과 일본 기업은 수입비용 절감을 중시하였음.

- FTA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내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.
- o 특히 한국기업은 이러한 측면을 많이 우려하였고, 일본기업은 국내 산업공동화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음.
- o 이 밖에 상대국가가 개방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, 그리고 문화 및 역사적 장벽을 지적하였음.
- FTA 건립 여부에 대한 결정시기는 3년 이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많았음.

<그림 2> 3국 기업의 자유무역지대 건립 결정시기에 대한 판단



- 둘째, 조사 대상기업 대부분은 FTA 건립이 동북아경제의 일체화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.
- 특히 88%의 응답기업이 무역자유화가 물적, 인적, 금융 자원의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,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(67%)와 구조조정(51%)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.
- 대부분의 응답기업은 FTA 건립은 중국경제의 성장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.

- 무역자유화는 무역마찰을 감소시키고 투자리스크를 낮추어 상호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기업의 90% 이상이 기대함.

□ 셋째, 대다수 응답기업들은 FTA 건립 이후 기업경영이나 투자전략상의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음.

- FTA 건립 이후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거나 새로 개척하려는 기업은 전체의 61%와 51%에 달함.
- 수입의 경우도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거나 개척하려는 기업이 48%와 39%에 달함.
- FTA 건립 이후 절반 이상의 기업은 기술도입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(61%) 또는 생산비용 절감(54%) 전략을 채택할 계획임.

□ 넷째, 응답기업들은 FTA 건립 이후 3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상응하는 지원 및 서비스체계를 갖추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응답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역내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기구의 설립이며, 그 다음으로 기술개발과 이전 및 협력 촉진을 위한 기구, 인적교류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등의 순임.
- 또한 대화 창구, 정보교류의 창구 설립에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고 있음.(***)